

내 마음 발견해야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문제가 아니죠. 그 후에 고려 문종 때에 부처님의 불법, 즉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 때까지도 마국사의 스님들을 다 끌고 가고 또 절을 부수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도둑 소굴이 태버리고 말았죠. 그 소굴에서는 참, 도둑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때로는 수백 명에 가깝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뽑아 내보내는 관리마다 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도둑들을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후, 그러니까 고려 명종 2년에 보조 국사(普照國師)라는 분이 왕명을 받고, 그 도둑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인연이 났습니다. 그 때 거기 와서 좋도록 말을 하니 좋도록 말을 하는 걸 들습니까? 보조 국사를 외려 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보조 국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런 군졸들을 몰고 와서 할 수밖엔 없구나!' 하고서 보조 국사는 바로 왕벌이 됐죠. 왕벌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왕벌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군졸들을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창을 비껴차라고 했습니다. 창 말입니다. 허허허. 그래서 창을 비껴차고 왕벌 속으로 들어갔으니, 보조 국사는 군졸들이 수만 명이나 활자라도 다 인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졸들을 죽, 벌 군졸들을 전부 이끌고 그 도둑떼들한테 가서는 그 비껴찬 창으로다가 그저 사정없이 그냥 찔렀죠. 찔러서 도둑들을 항복을 받았답니다.

보조 국사는 항복을 받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 하는 데로 가거라." 하니 "저는 불법이, 부처님 법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한 줄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둑들을 다 착한 불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왕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도토 다 군졸들을 갖다놓고는 그 왕벌 속에서 다시 나와서 보조 국사한테로 들어가도 두드러짐이 없었다 이겁니다. 보조 국사한테서 보조 국사가 나와서 그렇게 군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일처리를 했어도, 거기서 꺼냈어도 준 사이가 없고, 도토가 보조 국사한테로 들어갔어도 두드러진 사이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들고서 200석의 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국사는 그 200석을 받아가지고 부처진 절을 고치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던 중, 어느 스님이 와서 문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서의 석존의 사리가 문수 두상에 들어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나왔다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가사(袈裟) 유물을 보관했다더니 보관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며, 세번째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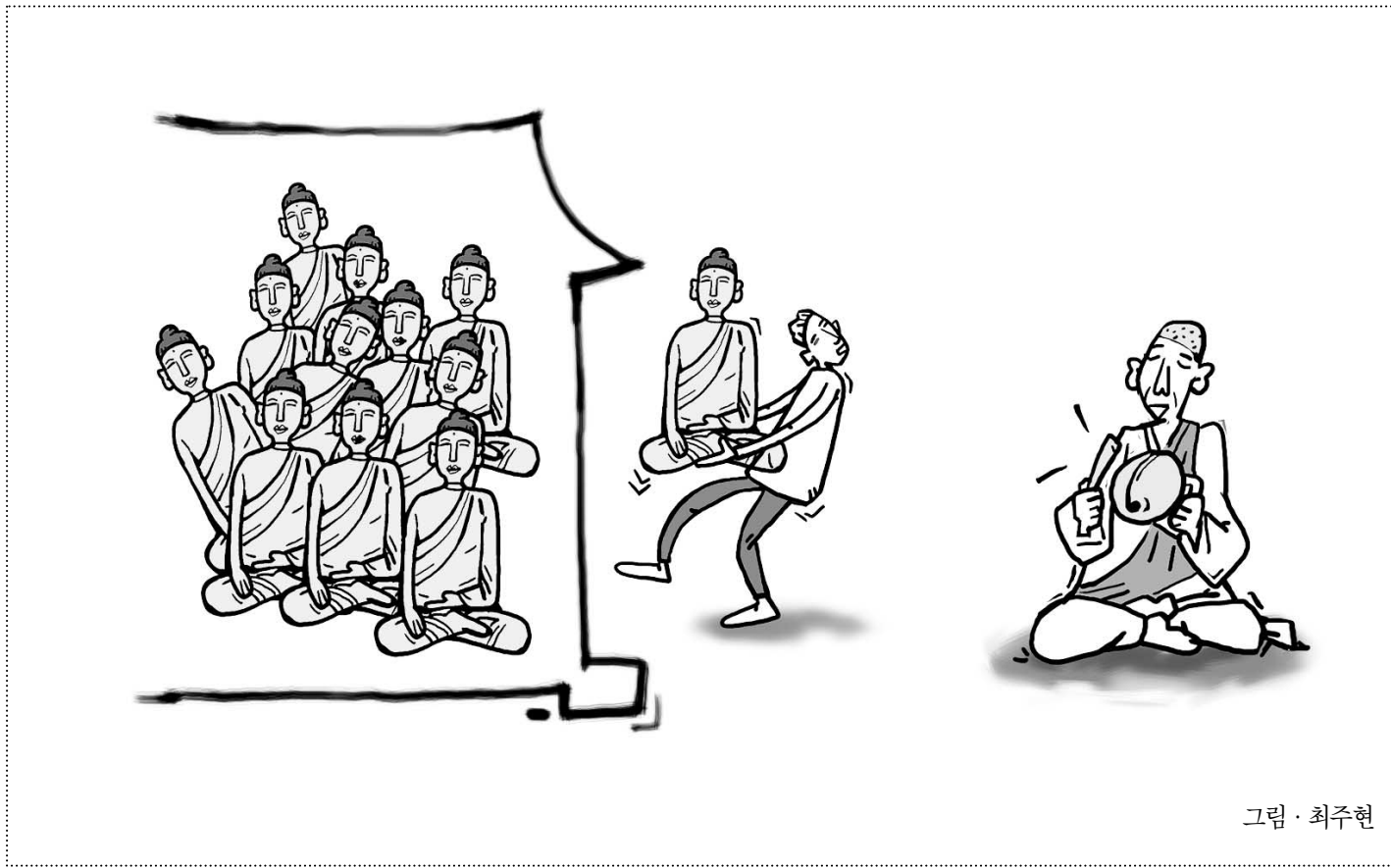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프단 소리 "어이구!" 해놓고는 번쩍 쳐다보니 아이, 보조 국사가 말입니다. 휘! 돌아서 가는데 이 가사와 장삼이 착! 날리거든요. 그것을 보고선 무르팍을 탁!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입니다. "아, 자재천궁(自在天宮)이 어딤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 사리고 가사 유물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이 다 이게 바로 무(無)로구나!" 그 무인 까닭에 바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생각하고, 요렇게 (물컵을 옮겼다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모든 일에, 일체 만법에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그대로 법이다. 그러니 무슨 '한단 안 한단' 언어가 거기 불을 리가 없죠. 그냥 혼살같이 한 번 생각 일으키면 그대로 법인데 어떻게 무슨 '한단 안 한단'가 거기, 언어가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것이 다 무(無)로구나!" "아! 진기하구나, 자재천궁의(自在天宮) 그 묘법! 그 묘법이란 참 이렇게, 이렇게 광대무변할 수가 있나!" 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아파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아파가 달도록 삼배를 하고 말입니다. "자재천궁의 부처님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하고선 그냥 절을 하고는 그냥 깔깔거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벌리고선 깔깔거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 보조 국사는 가만히 앉았다가 빙그레 웃고는 "참, 한 눈이 열 눈이고, 열 눈이 한 눈이 되듯이 만사 행동이로군." 하고선 그냥 그렇게 멋지게 양성을 했습니다.

그 책에 써놓은 걸로 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던 예전에 어떤 한 큰스님이 계시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큰스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책에 써있는 것을 그대로 하질 않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법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 써놓은 걸로 보서는 전부 누가 되게 해놨어요. 보조 국사가 뭐를 들고 주문을 외우고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되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멋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문을 외웠다고 할 수밖에요. 그렇게 누가 되게 해요! 큰 선사들을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특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禪도리라는 것은 생각을 요모조모 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견 천리만리 떨어지는 겁니다!

보조 국사는 저 왕벌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조 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보조 국사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는지, 그 세 가지들 말입니다. 왜 석존의 사리가 문수 두상에서 나왔으며, 왜 가사 유물을 그렇게 잘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보존한 사이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며, 또 보조 국사가 왕벌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한테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피리에 피릴 물고 피리에 피릴 물고, 열마나 그 걸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또, 선(禪)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부수고 온통 아담들을 쳤는지, 그때 시절

에는 한창이었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만약에 보조 국사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시급한 것은, 도제양성에 시급한 것은 스님네들이 일차고, 이차는 여러분입니다.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이 공부를 해서 누구든 위 아래를 한 주먹에 쥐고 배를 수 있는, 들이고 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만 우리는 평화보다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조 국사 안 계십니까? 허허허. 이 선도리(禪道)라는 것은 생각을 요모조모 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견 천리만리 떨어집니다. 요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이견 맞춰서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갖다 들이대면 떨어지는 것이 선도리입니다. 뭐 이거는 요것조

것 찾아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보이는 세계에서, 유의 법에서만 있는 거지 무심 속에서는 맞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허공에 빠다귀를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세운 거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빼면 빼는 거고, 했다 하면 하는 거고, 그랬다 하면 그러는 거고, 대답을 했다 하면 하는 거지, 뭐 요 생각 조생각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두드리시)고 발견을 해야 당당해지고, 어느 거든지 갖다가 들이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 국사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앞에 이렇게 앉았는 그 스님을 들고 있던 막대기로 어떻게 후려갈렸는지 "어이고!" 했습니다. "어이고!" 하고도, 그이도 참 가르치느라고 방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쩍 쳐다보니, 아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제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원령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菩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감했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법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발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감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정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